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연구

박 연 정¹⁾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교준비도 척도는 문헌조사 및 취학 예정 아동의 어머니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13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0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양호도를 점검하고 60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본조사를 통한 문항양호도조사 및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종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4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실제 응답은 담당교사가 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준비도 척도 예비문항은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사회정서적 발달, 생활습관 및 태도의 4가지 구성개념으로 정리되었다. 학교준비도 척도의 타당도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학교준비도 척도의 하위요인은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교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검사-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주요어 : 학령 전 아동,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1)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원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환경인 미시체계로부터 보다 포괄적인 환경인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환경체계와 맞물려 아동은 발달해간다. 즉, 아동은 그가 속한 가장 직접적인 환경인 가정은 물론 이웃, 시대 및 문화적 배경을 포함하는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시대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사회는 아동에게 급변하는 환경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환은 학령 전기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과 더불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의무교육의 실시로 인한 환경 변화에 있어서의 원활한 적응을 요구한다. 특히 학령 전기 아동의 경우 그 동안의 가정중심 생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적절한 적응을 요구하며, 이런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는 이후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 의의가 크다. Rouse, Brooks-Gunn과 McLanahan(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이후 부적응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한다. 즉, 초등학교 입학 시 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

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이후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향이 있다(Bowman, 2006).

통계청 자료(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에 따르면,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취학 유예 및 과령아 수가 2005년 46,824명으로 2000년(22,885명) 대비 약 2배, 1995년(7,454명) 대비 약 6배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학년도도의 경우는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 유예자로 나타나 1, 2월생의 상당수가 입학 적령기보다 늦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취학 기준일을 적용할 경우 동급생인데도 1, 2월생은 나이가 한 살 적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기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동아일보 2006년 5월 10일자). 따라서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부모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2008년부터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기에 이르렀고, 2007년까지는 현행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나라 부모들은 선행학습과 관련한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데 비하여(우남희, 2002), 조기입학은 물론 취학 적령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꺼려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생활을 통한 다양한 부적응 문제가 초래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개선은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요소를 갖추도록 교육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초등학교 입학에 계기로 아동은 가정중심에서 학교중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새롭게 접하는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학령 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떤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까? 아동이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입학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즉, 학교준비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준비도(readiness)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는 행동을 하기 위해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Burgess, 2005). Shepard와 Graue(1995)에 의하면, 준비도는 발달과정과 같이 생태학적 특성을 지니며, 개인의 이전 경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한편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는 보편적으로 준비도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위의 준비도 개념에 기초하여 학교준비도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는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태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습과 발달이 복합적·다차원적으로 혼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Kagan, Moore, & Bredekamp, 1995).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준비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을 위한 준비(ready to learn) 차원과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ready for school)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두 차원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전자는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선수요인으로서 학습의 기초개념이 강조되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후자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신체적·사회적·정서적으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정도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박혜정, 강혜원과 장명림, 1987).

최근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에 관한 다양한 환경 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준비라 함은 단지 미리 문자를 익히고, 수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 사회정서적 적응, 학습태도 및 언어수준, 인지 및 일반적 지식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런 포괄적 의미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을 가정보다는 지역사회로 돌리고 있다(NSW Parenting Center, 2003). 즉, 오늘날의 학교준비도는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준비도가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쪽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준비도 관련 국내 연구는 대체로 학습 준비도에 관한 것으로(권영례 외, 1998; 김정권과 여광웅, 1978; 박혜정, 강혜원과 장명림, 1987; 윤명희, 1995a, 1995b; 이연섭과 김성일, 1981; 이영석 외, 1993) 학교준비도의 일부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학습에만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준비도라는 이름 아래 실시된 연구는 척도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은혜(1979)와 김윤수(2003)의 연구 정도이고,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연구도 10여 편이 안 되는 실정이다. CPI(Cooperative Preschool Inventory)를 번안·수정하고 국내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

여 학교준비도 검사를 개발한 이은혜(1979) 또한 준비도를 초등학교 정규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건 및 학교학습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 정의하며 상당 부분 학습에 주안점을 둔 학교준비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윤수(2003)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준비도 요소 추출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준비도의 요소를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요소에 기초하여 지식, 적응, 기능, 성향, 규칙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여 문항을 추출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을 통한 사회적 타당도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의 준비도 연구는 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준비로서의 학교준비도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준비도 관련 기존 연구는 학습준비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보다 포괄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학교준비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학교준비도 척도라고 하더라도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내의 학교준비도 관련 연구의 역사는 짧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학교준비도 척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학교준비도에 관한 연구는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환경체계와 맞물려 변화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발달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준비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학교준비도 연구의 큰 흐름 중 보다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는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

(ready for school) 차원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학교준비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학습 위주의 준비도 개념에서 벗어나 전인발달의 입장에서 학습능력은 물론 아동의 신체발달에 근거한 운동능력,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사회정서적 적응 측면, 그리고 더불어 사는 데 꼭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포괄하는 광의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 내의 발달을 도모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돕고, 가정 내 부모에게는 원활한 준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아동생활지도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연구문제 3.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취학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만 6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연

급하여 만 5세부터의 조기취학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이병진, 2005).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취학 기준일이 2008년부터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해 취학을 앞둔 학령 전기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개발과 관련하여 우선 구인의 탐색과 추출 및 예비문항의 구성을 위한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¹⁾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에서는 서울과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자녀가 있는 어머니 94명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경력이 있는 현직교사 119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에 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학교준비도 척도의 구인 및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위해 교육학 및 아동학 전공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여기서 수정된 문항을 중심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예비문항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 교육경력이 최소 9년 이상인 아동학 전공 교수 3명, 초등학교 교사 5명, 유아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 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²⁾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학교준비도 예비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음해 취학 예정의 아동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문항양호도와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취학 예정 아동 57명의 담당교사 8명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학교준비도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취학 예정 아동 400명의 담당교사 32명을 중심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조사 자료를 수집한 바 있는 서울, 대전 소재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82명의 담당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교준비도 척도의 검사-재검사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의 진행순서에 따른 연구대상의 실제 표본수를 정리하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1) 본 연구자가 2006년 10월, 다음해 취학 예정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경력이 있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령 전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에 관한 인식을 살펴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후 어려워하는 부분,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의 연령차, 검사도구의 필요성 및 실시기간 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함.
- 2)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는 ‘두 사람의 의견

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성, 2001). 본 연구에서는 3점 리커트식 델파이방법과 함께 추가할 문항이 있을 경우 기타란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선행연구(Kim, Lee, Suen, & Lee, 2002)에 근거하여 문항 삭제 기준을 정하였고, 1회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간의 상당 수준 의견일치를 보여 조사를 마침.

표 1. 자료수집 단계별 표본수

단계	목적	질문지에 포함된 측정도구	표본수			
			아동	부모	교사	전문가 집단 I 전문가 집단 II
1	구인의	학교준비도 관련 인식조사		94	119	
2	탐색과	학교준비도 척도 예비문항 I				5
3	추출	학교준비도 척도 예비문항 II				12
4	예비조사	학교준비도 예비 척도	57		8	
5	본조사	학교준비도 척도	400		32	
		학교준비도 척도(재검사)	82		5	

2. 연구절차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구인 탐색과 추출 및 예비문항의 구성을 위해 문헌조사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준비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기존 척도를 고찰하였고, 인식조사에서는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식조사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경력이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 조사

도출된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우선 교육학 및 아동학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한 후, 교육경력이 최소 9년 이상인 아동학 전공 교수, 초등학교 교사, 유아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07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델파이방법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본조사에 앞서 2007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양호도와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토하였고, 2007년 9월 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음해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아동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요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실시기간은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가 시행한 학교생활 준비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기초하여 정한 것으로, 학교준비도 검사의 실시기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입학 전 6개월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본조사 실시기간을 9월 초로 잡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검사-재검사신뢰도 조사

학교준비도 척도의 검사-재검사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조사 실시 후 3주의 간격을 두고 앞서 자료를 수집한 바 있는 서울, 대전

소재의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3. 자료분석

학교준비도 척도개발과 관련하여 타당도 검증에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내용 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를 구하였고,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요인타당도를 중심으로 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에 들어가기 전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를 고려하여 문항양호도를 검토한 후, 원상관행렬, 반영상관계수(anti-image correlation coefficient),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절성 측정치,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였다. 한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 를 하위요인별로 산출하였고, 검사-재검사신뢰도 및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구인 탐색과 추출 및 예비문항의 구성을 위해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를 참고하였다. 준비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 특히 측정(김운수, 2003; 이은혜, 1979; Maxwell & Clifford, 2004; Meisels, 1999; Snow, 2006; Vernon-Feagans & Blair, 2006)에 관한 문헌 및 기존 척도를 참고하였으며, NEGP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2)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교준비도의 다섯 가지 영역, 즉 신체적 안녕과 운동신경발달, 학습태도, 언어발달, 인지 및 일반적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세부 교육내용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한편 학교준비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 예정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갖춰야 할 사항,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되는 부분, 초등학교 갓 입학 후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잘 준비된 아동들의 특징 등에 대해 묻고 이를 참고하였다.

이상의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 예비문항은 4가지 구성개념, 135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은 아동의 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운동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둘째,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언어능력, 수리능력, 일반 사물에 대한 지각 및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사회정서적 발달은 개인 내 그리고 개인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정서적 유능감을 포함하고, 넷째, 생활습관 및 태도는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의 지켜야 할 생활규범

및 올바른 생활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학교준비도 척도의 타당화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

우선 국내외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를 통해 구성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예비문항에 대한 교육학 및 아동학 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의미가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경우를 삭제하여 135문항에서 76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델파이방법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1학년을 담당하고 있으며 1학년 담임경력이 2~10년인 교사

이고, 유아교육기관 교사는 현재 다음해 취학을 앞둔 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취학 예정 아동의 담임경력이 3~8년인 교사로서,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령 전기 아동의 학교준비도 문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 현장경험을 반영하기에 중요한 전문가 집단으로 고려되어진다. 이와 같이 델파이방법을 실시한 이유는 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항의 사회적 수용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델파이방법의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있어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준비도 문항으로서...” ‘중요하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중요하다(3점)’의 3점 리커트식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타란을 두고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의 학교준비도 문항으로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델파이방법을 실시한 후 산출된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추가 문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선행 연구(Kim, Lee, Suen, & Lee, 2002)에 의하면 3점 리커트식 델파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평균점수가 2점 이하인 문항은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으로 간주하고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구성요인 중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과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요인에서 각 1문항씩 평균점수가 2점 이하로 나타나 이 2문항을 삭제하였다. 문항을 삭제한 후의 평균을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의 평균은 2.25~3.00,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

표 2. 델파이방법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목록

번호	교육경력 (년수)	최종 학위	분야
1	20	박사	아동학 전공 교수
2	13	박사	아동학 전공 교수
3	10	박사	아동학 전공 교수
4	36	학사	초등학교 교사
5	32	석사	초등학교 교사
6	16	학사	초등학교 교사
7	16	학사	초등학교 교사
8	11	학사	초등학교 교사
9	15	석사	어린이집 원장
10	9	석사	어린이집 원장
11	9	석사	유치원 교사
12	9	학사	유치원 교사

식'의 평균은 2.25~3.00, '사회정서적 발달'의 평균은 2.17~2.92, '생활습관 및 태도'의 평균은 2.50~3.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본 연구에서는 평균이 2점 이하인 2문항을 제외하면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 간 합의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델파이방법은 동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보통 3회 이상 반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1회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간의 상당 수준 의견일치를 보인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델파이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개방형 질문을 통해 6문항을 추가하였다.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에서는 "일정 무게(유아용 의자, 책 3~4권 등)를 혼자 들어 나른다.", "선위를 균형 잡고 따라 걷는다."와 같은 근력 및 대근육 운동에 관한 문항을,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와 같은 의사표현능력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사회정서적 발달'에서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한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한다."와 같은 공감에 관한 문항을, '생활습관 및 태도'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식사를 한다."와 같은 식습관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생활습관 및 태도'에 관한 문항 중 일부 내용은 보다 완전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요약하면 델파이방법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

과 기존의 2문항을 삭제하고 6문항을 추가하여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예비문항은 총 80문항으로 수정되었다.

구성타당도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가 확인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예비 척도에 대해 다음해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구성개념에 기초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같은 예비요인 내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수렴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예비요인 간에도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준비도 예비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고려한 후 본 조사에 사용될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여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한편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임정하(2004)와 엄세진(2006)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평균이 너무 높은 문항(3.5 이상), 상대도수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문항(한 번호에 65% 이상 응답된 경우), 하위요인별 문항-전체 상관이 낮아(2 이하)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높아지는 문항,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거나(3 이하) 높은(7 이상) 문항 등은 31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심으로 교육학 및 아동학 박사 5명의 자문을 얻어 학교준비도 예비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20문항을 삭제하였고 삭제하지 않은 문항

은 의미 전달이 보다 유용하도록 문장을 수정·보완하였다. 단지 산술적 결과에 의존해서 문항을 삭제할 경우, 연구자가 처음 상정한 예비 구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또 한 번의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문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다음해 입학을 앞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문항은 총 60문항으로, 이 문항을 중심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 학교준비도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 앞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 간 상관관계를 통한 문항양호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이 너무 높은 문항(3.5 이상), 상대도수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문항(한 번호에 70% 이상 응답된 경우),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 0.3 이하로 나타난 문항을 제거하여 총 45문항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기본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는 것이므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면(대체로 ± 0.3 이하), 그 자료는 요인분석에 부적합하다는 근거(이학식과 임지훈, 2006)를 참고로 하여 문항삭제를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의 잠재적인 공통요인을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의 주축요인추출방법을 선택하였고, 요인구조의 회전은 Oblimin 방식으로 사각회전하였다. 그리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표 3. 학교준비도 척도 문항의 요인분석 후 고유치 및 설명분산

요인	고유치	고유치 차이	설명분산	누적 설명분산
1	17.592	14.852	39.094	39.094
2	2.740	.665	6.088	45.183
3	2.075	.228	4.610	49.793
4	1.847	.604	4.105	53.898
5	1.243	.026	2.763	56.661
6	1.217	.086	2.704	59.364
7	1.131	.107	2.514	61.879
8	1.024	.097	2.275	64.153

표 3은 학교준비도 척도 문항의 요인분석 후 고유치 및 설명분산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표 3을 살펴보면, 2요인과 3요인, 4요인과 5요인 사이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적분산비율은 2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45%, 4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54%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크리 검사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의 수를 4개로 두고 사각회전(Oblimin) 후 1차 요인구조를 산출하였고, 각 요인 내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인 문항과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등 7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8문항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의 1문항과 요인 내 의미가 부적합한 1문항을 제외한 총 36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4요인의 총 설명분산은 52%로 나타났다. 사각회전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부

표 4. 학교준비도 척도 최종 문항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h^2
52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786	-.041	.109	.023	.661
55	공공장소(식당, 공연장, 경기장, 박물관, 병원 등)에서 조용히 한다.	.722	-.059	-.018	-.079	.532
58	활동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책, 종이, 가위, 풀 등)을 잘 간수한다.	.700	-.110	.171	.001	.560
24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다.	.544	.063	.000	-.121	.414
48	휴지는 스스로 휴지통에 버린다.	.481	.149	.110	.014	.385
20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여 듣는다.	.441	.172	.011	-.138	.396
3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079	.793	-.173	-.031	.520
23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002	.652	.124	-.043	.540
31	평상시 표정이 밝다.	-.049	.644	.136	.004	.472
54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	-.054	.634	.117	.136	.384
35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181	.584	-.030	-.053	.484
12	새로운 활동에 호기심을 보인다.	-.044	.579	.216	-.077	.514
8	원에서의 활동에 흥미가 있다.	.003	.538	.148	-.150	.492
27	매사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040	.535	.065	-.207	.440
36	친구와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를 잘한다.	.220	.505	.038	-.049	.463
4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 준다.	.355	.489	.064	.103	.498
32	웃어른께 공손하게 인사한다.	.358	.469	.002	.045	.468
7	친구와 서로 협력한다.	.320	.447	-.041	-.152	.523
11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	.284	.410	-.026	-.252	.548
46	위아래 사람에 대한 호칭(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등)을 구별한다.	-.002	-.014	.802	.023	.614
53	신체기관명을 알고 있다(예: 머리, 팔, 다리, 손, 발...).	.106	-.065	.719	-.018	.573
22	크기가 크고 작음을 구분한다.	-.016	.145	.710	-.082	.675
42	자기 집 가족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	-.001	-.016	.658	.040	.400
18	양이 많고 적음을 구분한다.	-.022	.072	.579	-.276	.609
34	오늘, 여름, 취침시간 등과 같은 시간 관련 개념을 이해한다.	.024	.187	.536	-.143	.545
50	좌우(왼쪽, 오른쪽)의 공간개념을 이해한다.	.015	.178	.533	-.081	.468
38	일상생활에서의 지시어를 이해한다.	.118	.004	.495	-.043	.345
56	책을 보는 방법(페이지 넘기기 등)을 알고 있다.	.379	-.013	.412	-.077	.516
14	받침 있는 글자를 쓴다(예: 공, 철봉, 운동장...).	.000	.022	-.078	-.827	.639
10	받침 없는 글자를 쓴다(예: 해, 나무, 무지개...).	-.007	-.104	.059	-.816	.646
6	받침 있는 글자를 읽는다(예: 책, 연필, 필통...).	.013	-.055	.175	-.777	.740
2	받침 없는 글자를 읽는다(예: 나, 너, 우리...).	-.037	.091	.225	-.589	.570
9	가위를 이용하여 모양을 반듯하게 오린다.	.252	.072	.060	-.486	.519
5	모양을 정확하게 따라 그린다.	.179	.301	.014	-.429	.548
26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르게 전달한다.	.306	.219	.040	-.325	.496
1	연필을 바르게 잡고 사용한다.	.250	.132	.081	-.304	.367
고유치		13.575	2.143	1.505	1.340	
설명분산		37.709	5.952	4.180	3.722	
누적설명분산		37.709	43.661	47.841	51.563	

하량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요인에 대한 명칭은 해당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예비문항 선정 시 이론적 개념으로 정한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또한 예비문항 선정 시 정한 여러 범주가 한 요인으로 묶인 경우, 이들 문항의 주변에 잠재된 공통요인의 개념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추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4개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6문항으로 예비문항 선정 시 생활습관 및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태도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요인을 ‘단체생활태도’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13문항으로 예비문항 선정 시 사회정서적 발달과 생활습관 및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것으로 생활습관 및 태도에 관한 문항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의 활동에 대한 흥미, 호기심, 친구 및 웃어른에 대한 인사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인 및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원만한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요인을 ‘정서교류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9문항으로 예비문항 선정 시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일반적 지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요인을 ‘일상생활지식’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인지발달 및 일

반적 지식,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지발달에 있어서는 언어능력과 그리고 운동신경발달에 있어서는 소근육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학습활동능력’으로 명명하였다.

표 5는 요인분석 시 사각회전을 실시할 경우 제시되는 요인 간 상관행렬로, 절대값이 .42에서 .50으로 요인 간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6은 요인분석 후 학교준비도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³⁾ 및 요인타당도(factorial validity)⁴⁾를 제시한 것으로, 학교준비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59~.67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타당도는 .80~.88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준비도 척도 최종 문항의 회전 후 요인 간 상관행렬표

요인	1	2	3	4
1 단체생활태도				
2 정서교류능력	.44			
3 일상생활지식	.47	.42		
4 학습활동능력	-.48	-.42	-.50	

3) 표 6에 제시된 요인 간 상관관계는 학교준비도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통해 산출한 것이고, 표 5에 제시된 요인 간 상관행렬은 요인분석 시 사각회전을 실시할 경우 나타나는 상관행렬이다.

4) 요인타당도(factorial validity)는 검사에 대한 요인의 부하량을 의미하며, 요인분석 시 나타난 하위요인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관계로 산출한다 (Brown, 1976).

표 6. 학교준비도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 및 요인 타당도 (n=400)

요인	1	2	3	4
1 단체 생활태도	.80***			
2 정서교류능력	.59***	.88***		
3 일상생활지식	.59***	.59***	.83***	
4 학습활동능력	.63***	.63***	.67***	.86***

*** p < .001. (대각선상의 값은 요인타당도 계수)

3. 학교준비도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학교준비도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의 동질적인 개념을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학교준비도 전체에 있어서는 .95, 각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84~.91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준비도 척도의 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지 3주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여 하

위요인별 두 점수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검사-재검사 간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가 .62~.71로 나타났고, 학교준비도 전체에 있어서는 .72로 나타났다.

끝으로 척도의 총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상관계수를 구한 후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반분신뢰도(기우법)를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을 나눠 살펴본 경우는 .9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나눠 살펴본 경우는 .80~.92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음해 취학 예정인 아동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갖춰야 할 요건인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준비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다음에서는 연구문제의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앞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다루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표 7. 학교준비도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n=400)	검사-재검사 신뢰도(n=82)	반분 신뢰도(n=400)
1 단체 생활태도	6	.84	.64	.80
2 정서 교류능력	13	.91	.71	.92
3 일상 생활지식	9	.90	.62	.90
4 학습 활동능력	8	.89	.67	.91
전 체	36	.95	.72	.96

1. 논의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취학 예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 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첫째, NEGP(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2)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교준비도의 다섯 가지 영역, 즉 신체적 안녕과 운동신경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학습태도, 언어발달, 인지 및 일반적 지식을 참고하였다. 둘째, 국내외 준비도에 관한 기존 척도를 분석하고 참고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넷째, 학교준비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해 취학 예정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경력이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였다.

그 결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예비문항은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사회정서적 발달, 생활습관 및 태도라는 4가지 구성개념을 가진 총 135문항으로 정리되었다.

NSRTEF(National School Readiness Task For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준비도는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준비와 신체적 건강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1991), Perry, Dockett와 Tracey(1998)에 의하면 학교준비도는 아동이 학교 입학에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실이나 개념으로서의 지식 요소, 학교환경에서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적응 요소,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서의 기능 요소, 학교나 학습에 대한

태도로서의 성향 요소, 그리고 학교의 기대치에 맞는 규칙준수나 습관에 관한 규칙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건강생활(감각 및 신체 인식, 기본운동능력, 건강, 안전), 사회생활(기본생활습관, 개인생활, 가정생활), 표현생활(탐색, 표현, 감상), 언어생활(말하기,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탐구생활(과학적 탐구, 수학적 탐구, 창의적 탐구)의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의 신체상의 건강한 발달은 물론 인지, 사회정서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입학 후 한 달 동안 ‘우리들은 1학년’이란 교재를 가지고 아동이 새로운 학교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리고 나서 국어(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수학(수학, 수학 익힘책), 바른생활(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란 교재를 통해 기초 학습능력 및 사회정서능력,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발달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신체, 인지, 사회정서의 전반적인 발달을 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학교생활 준비에 관한 인식조사(박연정, 2006)에서도 교사와 어머니 모두 학교준비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기본생활습관, 인지능력, 신체적 건강과 안녕,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성숙, 일반적 지식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준비도는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하며, 이는 단지 학습활동을 위한 능력뿐 아니라 아동의 일반적인 건강,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정서발달,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준비도 관련 기존 척도가 대체로 학습준비도에 관한 것으로(권영례 외, 1998; 김정권과 여광웅, 1978; 박혜정, 강혜원과 장명림, 1987; 윤명희, 1995a, 1995b; 이연섭과 김성일, 1981; 이영석 외, 1993) 학교준비도의 일부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학습에만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보완하여 학습능력뿐 아니라 운동능력, 사회정서능력, 생활습관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학교준비도 척도의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준비도 척도의 타당도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요인타당도를 중심으로 한 구성타당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계적 자료 분석뿐 아니라 몇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기에 설정한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면서 현 상황에 적합한 결과도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1요인은 ‘단체생활 태도’로 예비문항 구성 시 생활습관 및 태도

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요인 내에는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으며 원활히 단체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 및 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Perry, Dockett와 Tracey(1998), 김운수(2003)의 연구에서도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로 학교의 기대치에 맞는 규칙준수나 습관에 관한 규칙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에 관한 인식조사(박연정, 2006)에 따르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으로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을 제1로 꼽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은 오늘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을 담당하는 현장교사의 경우는 학업과 같은 인지능력보다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익혀야 할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분하에 우리나라는 타인과의 생활에서 기본예의를 지키는 것이 규범화 되어 있고 이를 강조하는 문화풍토를 고려할 때, ‘단체생활태도’에 대한 내용을 학교준비도 척도가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학교준비도 척도를 구성하는 2요인은 ‘정서교류능력’으로 예비문항 구성 시 사회정서적 발달과 생활습관 및 태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요인은 대체로 처음에 상정한 사회정서적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습관 및 태도 문항은 1요인과는 다소 구별되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호기심, 흥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웃어른께 인

사하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로하기, 친구와 협력하기와 같은 문항은 2요인뿐 아니라 1요인에도 다소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행동이 상호 교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임을 감안할 때 1요인과 2요인 내 의미 있는 문항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문항들은 2요인의 다른 문항들과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데 무리가 없고, 특히 2요인으로 묶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이 범주에 놓고 살펴보았다. 이렇게 구성된 ‘정서교류능력’ 요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사회정서적 능력에 관한 부분은 NEGP 및 NSRTF 등에서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로 강조되어 왔으며, Mashburn과 Pianta (2006)에 의하면 학교준비도는 사회적·학문적 능력에 초점을 맞춰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사회정서적 기능은 학교준비도의 중요한 요소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과 같은 사회현상이 건강한 아동발달을 저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사회성·정서성 함양이 필요함을 지각할 때, ‘정서교류능력’이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로 도출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특히 집단 따돌림은 다양한 부적응 지표 중에서 외로움(Boulton & Underwood, 1992; Crik & Grotper, 1996; Olweus, 1993), 불안(Crick & Grotper, 1996; Slee, 1994)과 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학교폭력은 점점 그 정도가 흉포화 되고 있으며, 지능화, 저연령화, 집단화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사회정서적 능력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러한 개인 및 타인과의 정서교류를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준비도 척도를 구성하는 3요인은 ‘일상생활지식’으로 예비문항 구성 시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일반적 지식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크기, 양에 대한 개념, 호칭, 신체기관, 시간개념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적 지식에 관한 요소 또한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주요개념으로 강조되어 왔으며(Brinkman et al., 2006; Janus & Offord, 2000),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는 하나 초등학교 입학 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가정 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는 하지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이기에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학교준비도 척도를 구성하는 4요인은 ‘학습활동능력’으로 예비문항 구성 시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운동신경발달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신경발달 문항은 가위사용, 모양 따라 그리기 등과 같은 소근육운동과 관련된 개념이기에는 하나 이는 인지발달과

수반되는 개념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요인에 넣어 살펴보았다. ‘학습활동능력’ 요인에는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된 언어능력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르게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 모양을 그리고 오리는 능력과 같은 학습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4요인은 인지발달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는 학교준비도의 구성개념으로 많은 연구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김윤수, 2003; Mashburn & Pianta, 2006; Perry, Dockett, & Tracey, 1998). 특히 준비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학습능력 위주의 학습준비도가 주를 이루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를 포함하며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광의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구성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의 영역을 포함한 전인발달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학습을 위한 기본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활동능력’ 또한 학교준비도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컨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는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의 4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학교준비도 척도의 초기 문항 구성 시 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에 관한 내용이 타 요인 내에 부하되거나 상당부분 제거된 것이다. 특히 시청각능력과 같은 신체건강에 관한 문항은 학교생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능력은 한

번 갖추면 큰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부분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문항양호도 조사에서 상당 부분 삭제되었다. 한편 가위사용, 모양그리기와 같은 운동능력은 ‘학습활동능력’ 요인 내에 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이 다양한 영역 간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 때문에, 신체·인지·사회정서발달로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별개의 구성요소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령 전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의 계기로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환을 맞는 시기로, 이 시기의 신체발달은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잠재된 일정 패턴에 따라 자연스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에 여러 영역의 발달을 위해 전제되는 기본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준비도 척도는 아동발달의 다양한 영역 즉, 신체·인지·사회정서발달에 기초하여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태도, 적응, 지식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교생활 준비를 위한 다양한 요소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추후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학교준비도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 검사-재검사신뢰도, 그리고 반분신뢰도(기우법)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교준비도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단체생활태도’가 .84, ‘정서교류능력’이 .91, ‘일상생활지식’이 .90, ‘학습

활동능력'이 .89로 나타났다. Cronbach α 계수는 .80~.90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0~.70이면 수용할 만한 것임을 고려할 때(이학식과 임지훈, 2005), 본 연구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인정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검사-재검사신뢰도를 구하였는데, '단체생활태도'가 .64, '정서교류능력'이 .71, '일상생활지식'이 .62, '학습활동능력'이 .68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신뢰도 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2~4주의 기간을 설정하는데(성태제, 1995), 본 연구에는 3주의 시간간격을 두었다. 이러한 시간차를 둔 것은 검사-재검사로 인한 반복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학교준비도 자체가 시간 변화와 함께 변하는 개념이고 아동의 개인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검사-재검사신뢰도가 내적합치도 및 반분신뢰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남아(.79)보다 여아(.61)의 경우 검사-재검사신뢰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가는 유아기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해 전체 검사-재검사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전체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단체생활태도'가 .80, '정서교류능력'이 .92, '일상생활지식'이 .90, '학습활동능력'이 .91로 나타났다. 반분신뢰도는 각 하위요인의 문항을 홀수와 짝수로 나눠 살펴보는 기우법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후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반분신뢰도는 양분된 두 집단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게 추정되며, 문항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짐을 고려할 때(성태제, 1995), 학교준비도 척도의 하위요인 중 가장 문항수가 적은 '단체생활태도' 요인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가장 문항수가 많은 '정서교류능력' 요인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예측된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교육학 및 아동학 전공교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담당교사와 원장을 중심으로 이들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몇 차례 확인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에 의해 학교준비도 척도의 예비문항을 수정·보완하며, 삭제 혹은 첨가하면서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준비도 척도의 문항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일부 문항을 삭제 혹은 보완한 후 문항변별도가 높은 문항만을 선별, 정리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예비조사에서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구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쳐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앞서 살펴본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구성개념(신체적 건강 및 운동신경발달,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사회정서적 발달, 생활습관 및 태도)과 예비문항은 국내외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아동이 신체·인지·사회정서발달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학교준비도 척도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요인타당도를 중심으로 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통한 높은 신뢰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즉, 개발된 척도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로서 신뢰할만한 척도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의 하위요인은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내 준비도 관

련 척도는 학습 위주의 학습준비도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관련 인지능력뿐 아니라 사회정서발달, 운동신경발달, 생활습관 및 태도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 학교준비도 척도를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근거를 두고 개발한 학교준비도 척도는 다양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척도의 문항 선정 시 수량적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의의가 있다. 즉, 몇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결과를 중심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방법을 채택하여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으로 대도시 집단의 아동을 중심으로 대상을 표집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도시 집단의 아동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아동 또한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준비도 척도는 교사가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교사가 지각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 부모, 아동지각을 중심으로 한 학교준비도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의 증거를 내용 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요인타당도를 중심으로 한 구성타당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학교준비도가 추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준비도에 대한 예측타당도와 같은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영례, 김압이, 광혜경, 장미자 (1998). Phelps 유아 학습 준비도 검사(PKRS)의 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3(2), 1-19.
- 김윤수 (2003).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준비도 요소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권, 여광응 (1978). 정신박약아동 판별연구: 1학년생 선별검사. 서울: 사단법인 자행회.
- 박연정 (2006).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인식조사-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간행.
- 박혜정, 강혜원, 장명림 (1987). 유아 학습준비도 검사 개발연구. 연구보고 RR 87-39. 한국교육개발원.
- 성태제 (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 엄세진 (2006).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남희 (2002). 한국의 조기교육의 허와 실.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윤명희 (1995a). 유아학습준비도검사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3(1), 117-142.
- 윤명희 (1995b). 유아 학습준비도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3(5), 333-352.
- 이병진 (2005). *초등교육학개론*. 서울: 문음사.
- 이연섭, 김성일 (1981).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연구(III)-학습준비도검사의 예비적 타당화. 연구보고 제134집.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석, 구학봉, 노명완, 김승훈, 차미정, 고승자 (1993). 계몽학습준비도검사 개발연구 (연구보고 6). 서울: 계몽아동연구소.
- 이은혜 (1979). 학교 준비도검사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교육학회*, 17(1), 49-60.
- 이학식, 임지훈 (2005). SPSS 12.0 매뉴얼. 경기: 법문사.
- 임정하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owman, B. (2006).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B. Bowman & E. K. Moore (Eds.), *School readiness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cultural diversity*. National Black Child Development Institute, Inc.
- Brinkman, S., Silburn, S., Goldfeld, S., Oberklaid, F., Sayers, M., & Fraser, A. (2006). Does

- the AEDI really predict readiness for school learning? Measuring its concurrent, construct and predictive validity. ISSBD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Brown, F. G. (1976). *Principles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Burgess, C. S. (2005). The evaluation of a multi-component early intervention strategy on school readiness levels. Doctor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Janus, M., & Offord, D. (2000). Readiness to learn at school.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1(2), 71-75.
- Kagan, S. L., Moore, E., & Bredekamp, S. (1995). *Reconsidering children's early development and learning: Toward common views and vocabulary*.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 Kim, J., Lee, Y., & Suen, H., & Lee, K. (2002). A dephi study of young children's readiness in Korea: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schoo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 Mashburn, A. J., & Pianta, R. C. (2006).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151-176.
- Maxwell, K., & Clifford, R. M. (2004). Research in review: school readiness assessment. *Young Children*, 59(1), 42-46.
- Meisels, S. J. (1999). Assessing readiness. In R. C. Pianta & M. Cox (Eds.),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pp.39-66). Baltimore: Brookes.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1991). *Caring communities: Supporting young children and families* (Report of the National Task Force on School Readiness). Alexandria, VA: Author.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2).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repor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SW Parenting Center (2003). *School readiness*. NSW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England: Blackwell.
- Perry, B., Dockett, S., & Tracey, D. (1998). Ready to learn: Exploring the concept of school readiness and its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Australia and New Zealand conference on the first years of school*. Canberra, pp.1-12.
-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 Slee, P. T. (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now, K. L. (2006). Measuring school readiness: Conceptu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7-41.

Vernon-Feagans, L., & Blair, C. (2006). Measure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1-6.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1 차원고접수 : 2008. 01. 31.

수정원고접수 : 2008. 02. 18.

최종게재결정 : 2008. 02. 20.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for Kindergarteners: Development and Validation

Park, Youn-Jung

Institute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hool Readiness Inventory for kindergarteners.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for kindergarteners was developed by a series of data collections and analyses.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was originally composed of 135 item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a preliminary survey of teachers and mothers. Eighty items out of 135 were selected for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by a number of experts. In the pilot study, 60 items out of 80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psychometric properties. In the main study, a 60-item-version of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the teachers of kindergarteners. Finally, the number of items was reduced to 36 using factor analyses. The preliminary School Readiness Inventory consisted of 4 basic categories: physical health and motor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daily life habits and attitudes. Validity, both in terms of content and social factors were confirmed by a number of experts.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was supported by means of factor analyses. There were four factors in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readiness for group activities, emotional competence, basic knowledge of daily life, and readiness for learning. The reliability of the School Readiness Inventory was confirmed using Cronbach Alpha, test-retest reliability, and split-half reliability testing.

Key words : kindergarteners, school readiness, inventory development

부 록

델파이방법의 평균 및 표준편차, 추가 문항(n=12)

하위요인	내 용	델파이 결과			
		M	SD	삭제	추가
(15)	연필을 바르게 잡고 사용한다.	2.83	.39		
	모양을 정확하게 따라 그린다.	2.33	.49		
	가위를 이용하여 모양을 반듯하게 오린다.	2.42	.51		
	젓가락을 바르게 잡고 사용한다.	2.50	.67		
	신발을 혼자 신고 벗는다.	2.83	.39		
	옷을 혼자 입고 벗는다.	2.67	.49		
	던진 공을 정확하게 받는다.	1.75	.62	△	
	울동을 정확하게 따라한다.	2.08	.67		
	발음이 부정확하다. - 역채점 문항	2.67	.49		
	수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다(교정시력 포함).	2.50	.52		
	수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청력을 갖고 있다.	2.67	.49		
	실외활동 시 대소변과 같은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	3.00	.00		
	실외활동 후 피곤해 한다. - 역채점 문항	2.25	.62		
	4시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다.	2.67	.49		
	일정 무게(유아용 의자, 책 3~4권 등)를 혼자 들어 나른다.				◎
(24)	선을 따라 균형 잡고 걷는다.				◎
	받침 없는 글자를 읽는다(예: 나, 너, 우리...).	3.00	.00		
	받침 있는 글자를 읽는다(예: 곰, 연필...).	2.67	.49		
	받침 없는 글자를 쓴다(예: 나무, 토끼...).	2.50	.52		
	받침 있는 글자를 쓴다(예: 책, 운동장...).	2.25	.45		
	2~3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는다(예: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	2.50	.67		
	2~3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쓴다(예: 곰이 잠을 잔다...).	1.92	.51	△	
	1에서 20까지 센다.	2.67	.49		
	1에서 20까지 쓴다.	2.25	.62		
	양이 많고 적음을 구분한다.	2.75	.45		
	크기가 크고 작음을 구분한다.	2.75	.45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 사물을 분류한다.	2.42	.51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르게 전달한다.	2.75	.45		
	이야기를 순서에 맞게 말할 수 있다.	2.42	.51		
	오늘, 여름, 취침시간 등과 같은 시간 관련 개념을 이해한다.	2.50	.52		
	일상적인 지시어를 이해한다.	2.92	.29		
	자기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다.	2.92	.29		
	자기 집 가족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	2.75	.62		
	자신보다 위아래 사람에 대한 호칭(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을 구별한다.	2.50	.67		
	성별을 구별한다.	2.67	.49		
	상하(위, 아래)의 공간개념을 이해한다.	2.75	.45		
	좌우(왼쪽, 오른쪽)의 공간개념을 이해한다.	2.67	.49		
	신체기관명을 알고 있다(예: 머리, 팔, 다리, 손, 발...).	2.83	.39		
	주변 사물의 이름을 알고 있다.	2.75	.45		
	책을 보는 방법(페이지 넘기기 등)을 알고 있다.	2.83	.39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				◎

델파이방법의 평균 및 표준편차, 추가 문항(n=12) (계속)

하위요인	내 용	델파이 결과			
		M	SD	삭제	추가
사회적 발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2.33	.65		
	친구와 서로 협력한다.	2.83	.39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	2.42	.51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	2.92	.29		
	집단활동시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 - 역채점 문항	2.92	.29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한다. - 역채점 문항	2.92	.29		
	다른 사람을 고의로 괴롭힌다. - 역채점 문항	2.92	.29		
	알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한다.	2.75	.45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83	.39		
	매사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2.75	.45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2.83	.39		
	평상시 표정이 밝다.	2.75	.62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2.92	.29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 짜증을 낸다. - 역채점 문항	2.50	.52		
	자신이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울어버린다. - 역채점 문항	2.58	.67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 준다.	2.17	.58		
	다른 사람이 실수한 일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2.17	.72		
생활관태도	새로운 분위기에 잘 적응한다.	2.58	.51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한다.				◎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한다.				◎
	등원시간이 규칙적이다.	2.83	.39		
	원에서의 활동에 흥미가 있다.	2.67	.49		
	새로운 활동에 호기심을 보인다.	2.58	.51		
	책을 읽는 데 흥미가 있다.	2.58	.51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3.00	.00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다.	3.00	.00		
	식사도중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밥을 먹는다. - 역채점 문항	2.83	.39		
	음식물을 손으로 집어 먹는다. - 역채점 문항	2.75	.45		
	웃어른께 높임말을 사용한다.	2.83	.39		
	웃어른께 공손하게 인사한다.	2.83	.39		
	친구와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를 잘한다.	2.75	.45		
	기본 예의를 알고 적절하게 표현한다(“고마워”, “미안해”라는 말 사용).	2.83	.39		
	벽이나 책상에 낙서하지 않는다.	2.67	.49		
	휴지는 휴지통에 버린다.	2.58	.67		
(21)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2.50	.67		
	공공장소(식당, 공연장, 경기장, 박물관, 병원 등)에서 조용히 한다.	2.75	.45		
	공공장소에서 차례를 지킨다.	2.92	.29		
	자기 물건을 잘 챙긴다. → 자기 물건을 스스로 잘 챙긴다.	2.92	.29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건(장난감, 책)을 잘 챙긴다.	2.92	.29		
	→ 활동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책, 종이, 가위, 풀 등)을 잘 간수한다.				
	위험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3.00	.00		
	주어진 시간 내에 식사를 한다.				◎